

#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질병구조의 변화 - 내원일수를 중심으로

Changing of proportion of disease in the last 20 years



**권의정**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정보정책연구부

- Key Points**
- ☑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질병구조를 내원일수 기준으로 분석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질환군을 20개로 분류하고 입원/외래로 구분하여 내원일수의 변화를 비교
  - ☑ 입원에서는 정신 및 행동장애가, 외래에서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군이 가장 크게 증가
- Key Words** 질병구조, 질병양상, 의료이용  
disease-mix, proportion of disease, medical use

## 1. 들어가며

질병구조란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상태와 질병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구조가 고정적이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질병구조의 변화는 경제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소득수준의 향상은 생활환경 및 위생상태 개선, 국민 영양 증진 등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까지 감염성 질병이 주요 사망원인이었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크게 감소한 대신 1980년대 이후로는 각종 암과 당뇨병,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각종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을 차지하였다(유승훈 등, 1990).

인구집단의 질병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크게 사망자료와 질병자료 두 가지 자료를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사망자료를 활용한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사망

원인통계』가 대표적이다. 『사망원인통계』는 당해 연도 사망 건에 대한 사망원인을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인분류 지침에 따라 집계하는 것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으로 전체 사망 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자료를 활용한 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진료비 주요통계』 등이 있다. 질병자료를 활용한 통계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전체 질병을 298질병분류 또는 질병 소분류 등으로 구분하여 다발생 진료인원 또는 진료비 금액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발표한 2019년 진료비 주요통계에 의하면 다발생 진료인원 기준 1위 질병은 입원에서 노년 백내장이었으며, 외래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다.

질병구조를 설명할 때 사망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인구집단에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주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망 건 외의 질병으로 발생하는 전반적인 의료이용 현황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질병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진료인원, 내원일수, 진료비 등의 기준 값 설정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로 2019년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입원 질병 중 진료인원 기준 다발생 1위는 노년 백내장이나 내원일수와 진료비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진료인원과 내원일수의 경우 의료이용 변화의 포커스를 진료인원으로 볼 것인지, 내원일수로 볼 것인지를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진료인원의 경우 환자 1인이 당해년도에 앓게 되는 질병의 종류가 1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질병 간 진료인원이 중복되어 집계된다는 단점이 있다. 진료비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에는 의료수가의 변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등과 같이 의료이용 외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하므로 질병구조를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의료이용 변화를 내원일수 기준으로 분석하고, 전체 질병을 20개 분류로 구조화하여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질병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분석자료 및 방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5)에서는 전체 질병을 22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직접적인 질병발생이 아닌 보조분류에 속하는 그룹인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과 ‘특수목적 코드’를 제외하고 20개 그룹을 우리나라 질병구조 분류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분석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심사결정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시점은 환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시점인 요양개시일자로 하였다. 최근 20년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비교 기준 연도를 2000년, 2019년으로 정의했으며 2010년은 자료를 참고수치로 제시하였다. 각 연도별 청구시점에 따른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 심사기간은 분석 연도 12월말 기준 다음 해 6월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분석자료 중 2000년 질병 통계는

2000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였다. 또한 내원일수 변동량에 대한 질병그룹별 영향력을 보기 위해 기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분석자료 상세

구분	변수																																																															
분석자료	2010년 1월 ~ 2020년 6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2010년 진료분 : 2010년 1월 ~ 2011년 6월 심사결정 자료 - 2019년 진료분 : 2019년 1월 ~ 2020년 6월 심사결정 자료 * 2000년 질병통계 : 2000 건강보험통계연보 참조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 (질병그룹 산출기준)	<p><b>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b></p> <table border="1" data-bbox="375 680 1181 1450"> <thead> <tr> <th>질병명</th> <th>질병기호</th> <th>분석기호*</th> </tr> </thead> <tbody> <tr><td>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td><td>A00-B99</td><td>AA</td></tr> <tr><td>신생물</td><td>C00-D48</td><td>AB</td></tr> <tr><td>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td><td>D50-D89</td><td>AC</td></tr> <tr><td>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td><td>E00-E90</td><td>AD</td></tr> <tr><td>정신 및 행동 장애</td><td>F00-F99</td><td>AE</td></tr> <tr><td>신경계통의 질환</td><td>G00-G99</td><td>AF</td></tr> <tr><td>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td><td>H00-H59</td><td>AG</td></tr> <tr><td>귀 및 유도의 질환</td><td>H60-H95</td><td>AH</td></tr> <tr><td>순환기계통의 질환</td><td>I00-I99</td><td>AI</td></tr> <tr><td>호흡기계통의 질환</td><td>J00-J99</td><td>AJ</td></tr> <tr><td>소화기계통의 질환</td><td>K00-K93</td><td>AK</td></tr> <tr><td>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td><td>L00-L99</td><td>AL</td></tr> <tr><td>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td><td>M00-M99</td><td>AM</td></tr> <tr><td>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td><td>N00-N99</td><td>AN</td></tr> <tr><td>임신, 출산 및 산후기</td><td>O00-O99</td><td>AO</td></tr> <tr><td>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td><td>P00-P96</td><td>AP</td></tr> <tr><td>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td><td>Q00-Q99</td><td>AQ</td></tr> <tr><td>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td><td>R00-R99</td><td>AR</td></tr> <tr><td>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td><td>S00-T98</td><td>AS</td></tr> <tr><td>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td><td>Z00-Z99</td><td>AZ</td></tr> </tbody> </table> <p>* 분석 편의를 위해 연구에 인용한 임의 기호로 그림1,2,3,4의 변수명으로 이용함</p>	질병명	질병기호	분석기호*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B99	AA	신생물	C00-D48	AB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D50-D89	AC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E90	AD	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AE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AF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H59	AG	귀 및 유도의 질환	H60-H95	AH	순환기계통의 질환	I00-I99	AI	호흡기계통의 질환	J00-J99	AJ	소화기계통의 질환	K00-K93	AK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L99	AL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AM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N00-N99	AN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AO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P96	AP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Q00-Q99	AQ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AR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AS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Z00-Z99	AZ
질병명	질병기호	분석기호*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B99	AA																																																														
신생물	C00-D48	AB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D50-D89	AC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E90	AD																																																														
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AE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AF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H59	AG																																																														
귀 및 유도의 질환	H60-H95	AH																																																														
순환기계통의 질환	I00-I99	AI																																																														
호흡기계통의 질환	J00-J99	AJ																																																														
소화기계통의 질환	K00-K93	AK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L99	AL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AM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N00-N99	AN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AO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P96	AP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Q00-Q99	AQ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AR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AS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Z00-Z99	AZ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기여도(기여율) = <math>\frac{\text{개별구성항목의 증감분}}{\text{전체의 증감분}} \times 100</math></li> <li>■ 절대기여도(기여도) = 해당 항목의 상대기여도(기여율) × 전체 증감분</li> </ul>																																																															

주: 1) 22개 분류 중 보조분류에 속하는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98)’, ‘특수목적코드(U00~U99)’는 분석에서 제외함  
 2) 한방 상병 및 약국 진료실적 제외



### 3. 분석결과

#### 가. 입원 질병구조

##### 1) 일반 현황

20개 질병분류별 입원 내원일수(이하 입원일수)의 총 합은 2000년 38,589천 일에서 2019년 143,329천 일로 20년간 271.4% 증가하였다. 2000년 다발생 1위 질환군은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로 전체 입원 질환군의 13%를 점유했으며, 해당 질환군에는 골절, 중독, 화상과 같은 신체부위의 손상과 관련된 질병이 속해 있다. 2019년 다발생 1위 질환군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전체 입원 질환군의 22.1%를 점유했으며, 해당 질환군에는 치매, 우울증, 조현병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관련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표 2).

(표 2) 질병분류별 입원일수 및 점유율 현황

(단위: 천 일, %)

구분	질병분류	2000년		2010년		2019년	
		입원일수	점유율	입원일수	점유율	입원일수	점유율
AA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690	4.4	2,997	3.0	3,773	2.6
AB	신생물	4,891	12.7	10,313	10.2	14,667	10.2
AC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133	0.3	202	0.2	254	0.2
AD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086	2.8	2,766	2.7	2,369	1.7
AE	정신 및 행동 장애	4,708	12.2	16,196	16.0	31,686	22.1
AF	신경계통의 질환	796	2.1	5,788	5.7	16,507	11.5
AG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405	1.0	674	0.7	922	0.6
AH	귀 및 유도의 질환	207	0.5	510	0.5	530	0.4
AI	순환기계통의 질환	4,091	10.6	14,874	14.7	17,190	12.0
AJ	호흡기계통의 질환	3,032	7.9	7,249	7.2	9,160	6.4
AK	소화기계통의 질환	3,623	9.4	4,908	4.9	5,225	3.6
A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328	0.8	767	0.8	1,059	0.7
AM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2,522	6.5	10,506	10.4	13,019	9.1
AN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1,329	3.4	3,086	3.1	4,609	3.2
AO	임신, 출산 및 산후기	3,231	8.4	2,638	2.6	1,889	1.3
AP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791	2.1	667	0.7	563	0.4
AQ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263	0.7	302	0.3	329	0.2
AR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303	0.8	858	0.8	2,095	1.5
AS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5,010	13.0	14,015	13.9	14,502	10.1
AZ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149	0.4	1,797	1.8	2,981	2.1
	계	38,589	100	101,112	100	143,329	100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다발생 질환군의 순위변화를 살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는 2000년 3위에서 2019년 1위로 상승했으며,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는 2000년 1위에서 2019년 5위로 하락하였다. ‘신경계통의 질환’은 2000년 12위에서 2019년 3위까지 상승하였는데, 해당 질환군에는 뇌수막염, 편두통, 수면장애 등과 같은 질병이 속해있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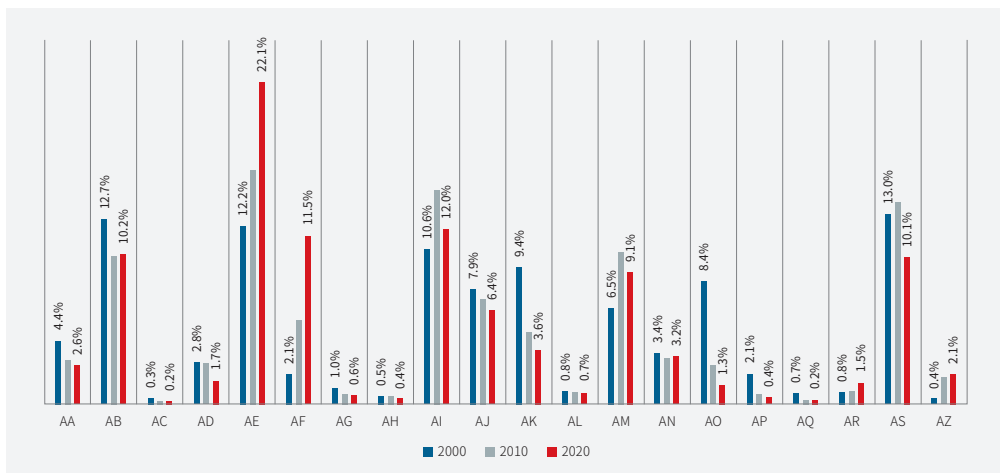
(표 3) 질병분류별 상위 5개 입원질환군 변화

(단위: 천 일, %)

순위		질병분류	입원일수		증가율
2000년	2019년		2010년	2019년	
3	1	정신 및 행동 장애	4,708	31,686	573.0
4	2	순환기계통의 질환	4,091	17,190	320.2
12	3	신경계통의 질환	796	16,507	1973.8
2	4	신생물	4,891	14,667	199.9
1	5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5,010	14,502	189.4

## 2) 질병분류별 입원일수 점유율 비교

입원일수의 절대량 비교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대적 양의 차이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병구조의 변화를 한눈에 살펴보기 어렵다. 이에 비교 값으로 입원일수가 아닌 각 연도별 질환군의 입원일수 점유율을 활용하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질병구조의 변화를 수월하게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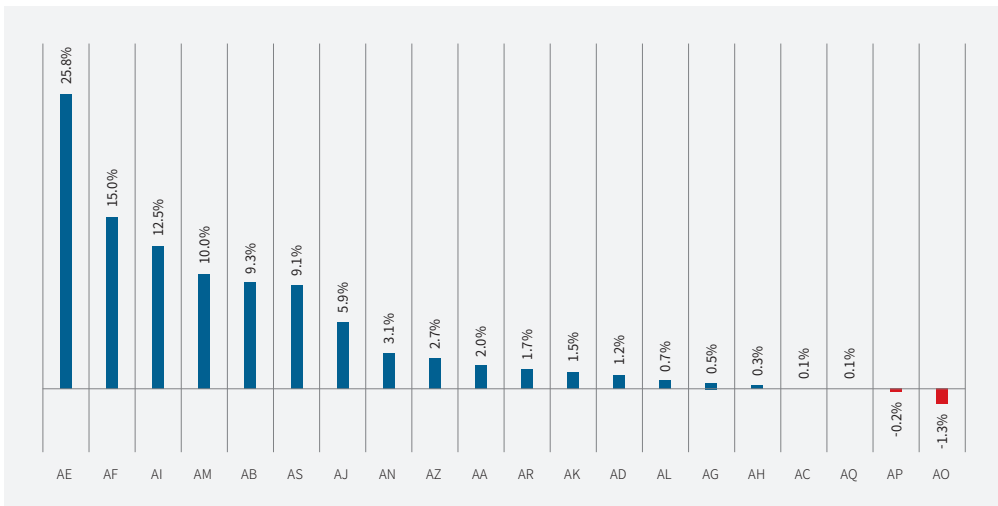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20년간 질병분류별 입원일수 점유율 비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청구자료

최근 20년간 입원일수 점유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질환군은 ‘정신 및 행동 장애(AE)’와 ‘신경계통의 질환(AF)’으로 2000년 대비 2019년 각각 9.9%p, 9.5%p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질환군은 ‘임신, 출산 및 산후기(AO)’로 2000년 대비 2019년 7.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전체 입원일수 변동량에 대한 질병분류별 기여도

2000년 대비 2019년 입원일수 총 1억 474만 일 증가분에 대해 20개 질병분류별 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20년간 입원일수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질환군은 ‘정신 및 행동 장애(AE)’로 기여율은 25.8%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신경계통의 질환(AF)’이 15%를, ‘순환기계통의 질환(AI)’이 12.5%를 기여하였다. 신생아 및 산모와 관련된 질환군인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AP)’와 ‘임신, 출산 및 산후기(AO)’는 각각 -0.2%, -1.3%를 기여하고 있어 소폭이지만 입원일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2000년 대비 2019년 질병분류별 입원일수 변동의 항목별 기여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청구자료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입원 질병구조의 최상위는 과거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와 ‘신생물’에서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순환기계통의 질환’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며, ‘신경계통의 질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나. 외래 질병구조

1) 일반 현황

20개 질병분류별 외래 내원일수(이하 방문일수)의 총 합은 2000년 455,180천 일에서 2019년 817,525천 일로 20년간 79.6% 증가하였다. 2000년 다발생 1위 질환군은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전체 외래 질환군의 33.8%를 점유했으며, 해당 질환군에는 급성 상기도 감염, 인플루엔자 및 폐렴 등과 관련된 질병이 속해 있다. 2019년 다발생 1위 질환군도 2000년과 같은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전체 외래 질환군의 20.4%를 점유하였다(표 4).

(표 4) 질병분류별 방문일수 및 점유율 현황

(단위: 천 일, %)

구분	질병분류	2000년		2010년		2019년	
		방문일수	점유율	방문일수	점유율	방문일수	점유율
AA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7,500	3.8	23,697	3.4	27,530	3.4
AB	신생물	3,680	0.8	11,458	1.6	17,813	2.2
AC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543	0.1	1,248	0.2	1,455	0.2
AD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9,856	2.2	23,441	3.3	37,323	4.6
AE	정신 및 행동 장애	6,978	1.5	12,527	1.8	21,304	2.6
AF	신경계통의 질환	4,149	0.9	8,819	1.2	12,034	1.5
AG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18,068	4.0	32,989	4.7	39,434	4.8
AH	귀 및 유도의 질환	14,889	3.3	20,221	2.9	17,978	2.2
AI	순환기계통의 질환	22,288	4.9	52,268	7.4	58,805	7.2
AJ	호흡기계통의 질환	154,077	33.8	176,467	25.0	167,024	20.4
AK	소화기계통의 질환	78,717	17.3	94,637	13.4	117,238	14.4
A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25,477	5.6	36,836	5.2	41,860	5.1
AM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46,766	10.3	110,108	15.6	133,843	16.4
AN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19,377	4.3	32,025	4.5	39,230	4.8
AO	임신, 출산 및 산후기	961	0.2	1,427	0.2	1,027	0.1
AP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225	0.0	411	0.1	476	0.1
AQ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255	0.1	635	0.1	998	0.1
AR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4,809	1.1	10,767	1.5	18,754	2.3
AS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25,205	5.5	47,555	6.7	51,673	6.3
AZ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1,358	0.3	9,599	1.4	11,726	1.4
	계	455,180	100	707,133	100	817,525	100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다발생 질환군의 순위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1위는 2000년과 2019년 모두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동일하였으며,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소화기계통의 질환’이 2위, 3위로 2000년과 비교하면 2019년에 서로 순위가 바뀌었다.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에는 관절증, 척추병증, 골다공증 등과 같은 질병이, ‘소화기계통질환’에는 구강질환,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간의 질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순환기계통의 질환’은 2000년 6위에서 2019년 4위로 상승하였는데, 해당 질환군에는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질병이 속해있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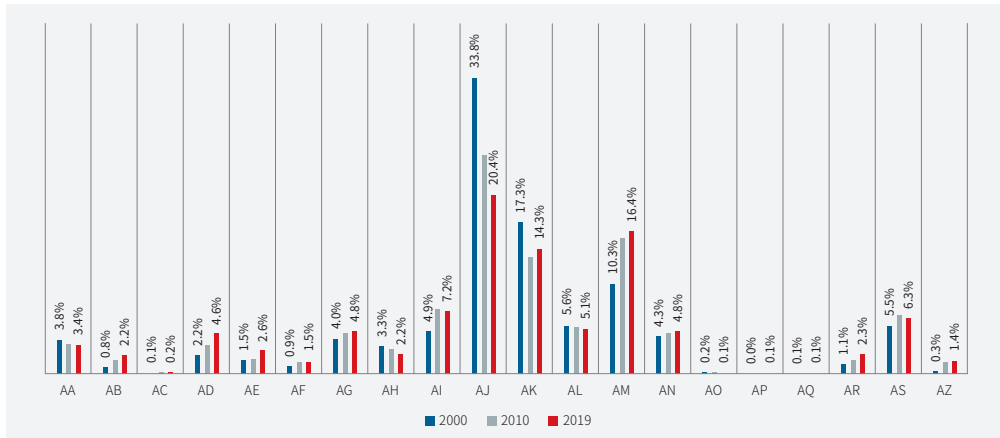
(표 5) 질병분류별 상위 5개 외래질환군 변화

(단위: 천 일, %)

순위		질병분류	방문일수		증가율
2000년	2019년		2010년	2019년	
1	1	호흡기계통의 질환	154,077	167,024	8.4
3	2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46,766	133,843	186.2
2	3	소화기계통의 질환	78,717	117,238	48.9
6	4	순환기계통의 질환	22,288	58,805	163.8
5	5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25,205	51,673	105.0

## 2) 질병분류별 방문일수 점유율 비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대적 양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비교 값으로 방문일수가 아닌 각 연도별 질환군의 방문일수 점유율을 활용하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외래 질병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최근 20년간 질병분류별 방문일수 점유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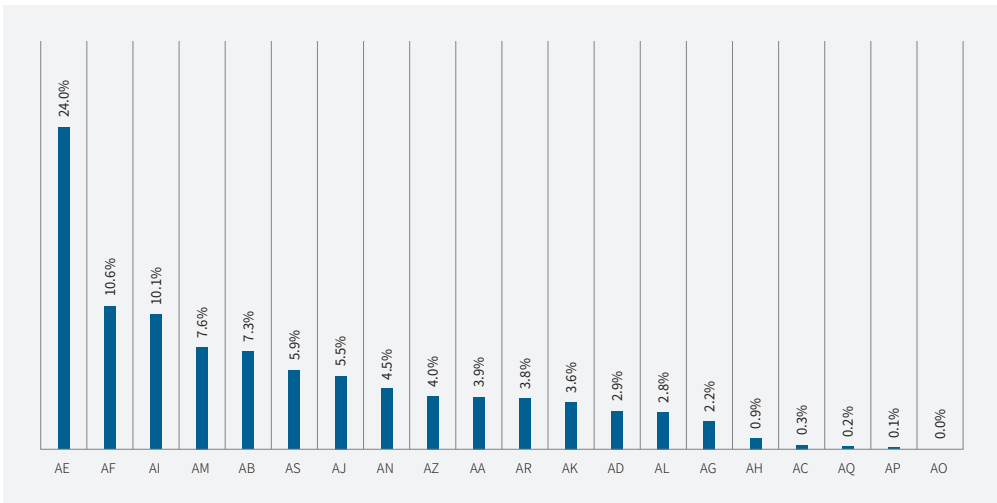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청구자료



2000년 ‘호흡기계통의 질환(AJ)’의 방문일수는 20개 질병분류 중 전체 방문일수의 33.8%를 점유하며 타 질환군의 점유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2019년에도 ‘호흡기계통의 질환(AJ)’은 여전히 1위를 점유하고 있으나, 점유율은 20.4%로 2000년과 비교하면 큰 폭(-13.4%p)으로 하락하였다. ‘호흡기계통의 질환(AJ)’의 점유율이 감소한 대신 타 질환군의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중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AM)’의 점유율이 6.1% 상승하여 2019년 20개 질병분류 중 16.4%를 점유하게 되었다.

### 3) 전체 방문일수 변동량에 대한 질병분류별 기여도

2000년 대비 2019년 방문일수 총 3억 6,235만 일 증가분에 대해 20개 질병분류별 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20년간 방문일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질환군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AM)’으로 기여율은 24%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소화기계통의 질환(AK)’, ‘순환기계통의 질환(AD)’이 각각 10.6%, 10.1%를 보였다.



[그림 4] 2000년 대비 2019년 질병분류별 방문일수 변동의 항목별 기여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청구자료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외래 질병구조는 ‘호흡기계통의 질환’,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이 질병분류 중 상위권을 차지 하였다. 다만 ‘호흡기계통의 질환’이 감소하고,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증가하고 있었다.

## 4. 나가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질병구조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인구구조 및 생활습관의 변화를 토대로 우리나라 질병구조가 향후 암과 당뇨병,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퇴행성질환 중심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유영학, 1997). 2010년 이후 이와 같은 연구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각 통계생산 기관에서 질병분류별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면서 그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에도 최근까지 사회, 경제, 의료기술, 생활습관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 연구결과만으로 우리나라 질병구조가 여전히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질병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질병구조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값으로는 내원일수(입원일수, 방문일수)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원 질병분류 중 상위 질환군의 점유율은 2000년을 기준으로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가 13%, ‘신생물’이 12.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은 ‘정신 및 행동 장애’가 22.1%를 점유하며 타 질환군의 입원일수 점유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해당 질환군에 치매 상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신 및 행동 장애’는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입원 질병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순환기계통의 질환’과 ‘신경계통의 질환’도 입원일수 증가에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래 질병분류 중 상위 질환군의 점유율은 2000년과 2019년 모두 ‘호흡기계통의 질환’,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이 방문일수 기준 상위 3개 질환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호흡기계통의 질환’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방문일수 증가에 기여하는 주요 질환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비교 수치 값을 내원일수로 정의하여 접근하였는데, 진료인원과 진료비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질병구조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결과 해석의 주요 관점을 건강보험 재정측면에서 볼 것인지, 의료이용 측면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므로 타 자료와 비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분석에 활용된 비교 수치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질병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시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2000년 초까지의 기존 연구사례들에서 우리나라 질병구조가 과거 전

여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2020년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질병관리 방향은 이 글의 분석을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필수적인 정신건강 관리 및 현대인의 주요 질병으로 꼽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관리가 향후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정순.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변천과 전망. 한국역학회지. 1989;11(2):155-174.
- 유승흠, 정상혁. 의료보험 통계자료를 이용한 최근 우리나라 질병구조 변화관찰. 예방의학회지. 1990;23(3):345-357.
- 유영학. 질병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1997;9(0):53-61.
- 이승욱. 보건의료의 수준의 변화와 대응전략: 질병 및 사망유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학논집. 2001;38(1):162-173.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건강보험통계연보. 2001.
-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015.
- 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통계. 201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진료비 주요 통계. 2020.